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3.5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9	23 30	24 31	25	26	27	28

원/달러 환율
1,465.55원 (-0.55원)

KOSPI
5,093.54 (-698.37, -12.06%)

KOSDAQ
978.44(-159.26, -14.00%)

국고채 10년 금리
3.632(+0.038%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3월 자산배분의 창(窓)	푸른 부엉이가 말하다: Capex 규모보다 숨겨진 구조를 보라 [이영주]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산 넘어 산이지만… [김상만]
월간 하나채권	[3월] 미국은 제 갈 길, 한국은 유가 충격 불가피 [박준우]
해외채권	BOJ의 JGB 매입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허성우]

기업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빅뱅 컴백 오피셜 [이기훈]

산업분석 Monthly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	하이브리드차 위주로 시장을 상회하는 실적을 유지 중 [송선재]

글로벌리서치

Umicore	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 통합 밸류체인 구축 계획 [김현수]
뉴스케일파워	반등을 위해 필요한 것 [김시현]

단기투자유망종목

RF머트리얼즈

하나증권

2026년 3월 5일 | Global Asset Research

3월 자산배분의 창(窓)

푸른 부엉이가 말하다:
Capex 규모보다 숨겨진 구조를 보라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선임연구원 하형민 hyeongmin.ha@hanafn.com

BDC 급락: SaaS 성장성 균열

최근 BDC는 중소·미들마켓 기업 대상으로 직접대출 통해 성장. 이자수익 중심이며, 변동금리 비중 높아 금리 상승기에 수익성 개선되는 구조. 대체로 자산도 1순위 담보대출로 구성되어 방어적 신용으로 인식. 그러나 포트폴리오 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 비중이 평균 20~30% 수준으로 높음. 오랜 기간 SW 산업은 반복 구독 기반 매출과 높은 마진, 낮은 경기 민감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AI 확산으로 상기 성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

기업 인력 감축·생산성 개선이 좌석(Seat) 기반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반복 매출의 안정성에 균열 발생. Pluralsight 사례는 단순 기업 부실이 아니라 SaaS 모델의 구조적 취약성이 현실화된 사건. 상당 대출이 Non-accrual(무수익자산)로 전환되며 채권자들 또한 지분 전환 진행. 연초 BDC 급락은 금리 요인이 아닌, BDC 성장의 기반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트리거로 작용.

블루아울의 환매 구조 전환: 유동성 스트레스 확대

Blue Owl OBDC Ⅱ 펀드는 장기·비유동 직접대출 자산을 보유하며 분기마다 NAV 5%까지 환매 허용하는 semi-liquid 구조. 25년 이래 사모대출 불안 커지며 OBDC Ⅱ 환매 요청이 반복적으로 한도를 초과. 이에 블루아울은 비례배분 적용하는 동시에, 유동성 전환 위해 상장 BDC와의 합병을 추진했으나 투자자 반발로 철회. 결국 2월 Blue Owl은 분기 환매를 영구 종료. 대신 현금기반 자본 반환 방식으로의 전환 선언.

시장은 환매 창구 폐쇄 자체를 유동성 스트레스 신호로 해석하며 불안감 확대. OBDC Ⅱ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미스매치 보유. 장기/비유동적 자산에 비해 투자자들은 단기/부분 유동성을 기대. 우선 지금까지 자산 매각비율은 1% 내외로 관리 가능 구간으로 간주. 그러나 향후 5% 초과 시 NAV 신뢰성 훼손 및 유동성 스파이럴 위험 가능성.

불루아울 사태는 개별 이슈로 시작했으나, 불안심리 확산되며 다른 non-traded BDC 전반의 환매율 상승 관측. 헤지펀드들의 OBDC Ⅱ 지분 할인 매입 제안 등이 시장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 당분간 BDC 업종 단기 변동성 증대 구간.

Hyperion 들여다보기: 진짜 위험은 Capex가 아닌 '숨겨진 레버리지'

Meta의 Hyperion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약 $300억 규모. SPV가 부채를 조달, Meta와 Blue Owl 펀드가 2:8로 지분 투자. SPV 부채는 Meta 재무제표에 비연결(off-balance) 처리. 그러나 감사인은 해당 판단을 Critical Audit Matter로 지적. 레버리지 적층 리스크도 존재(1층 SPV 프로젝트 부채, 2층 펀드 차원 NAV Loan 설정). 동일 자산 기초의 다층 레버리지 구조. AI 데이터센터 감가상각 이슈도 반복되며 불확실성 지속. 전통 인프라 대비 GPU·서버 교체 주기가 3~5년에 불과하기 때문. 미래 SPV 현금흐름 둔화 시, 개별기업보다 금융설계 방식에 따른 구조적 긴장감이 먼저 확대될 가능성.

Hyperion 구조의 핵심은 단순히 빅테크의 Capex 규모가 아님. Capex가 어떤 금융 구조를 통해 확장되고 있는가가 중요. Off-balance 처리, SPV 구조, NAV Loan 결합을 통해 숨겨진 부채가 누적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2026년 3월 4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

산 넘어 산이지만…

공사채는 이럴 때 쓰라고 발행해온 것이다

시장금리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2월 중에는 채권시장안정을 위한 유관기관들의 대책 내지 안정화 소통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로 시작된 통화당국의 안정 노력은 2월 말 완화적 금통위로 귀결되면서 그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였다. 크레딧 시장 내부적으로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정부 주도의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가 결성이 되었고 관련 협의체에는 이른바 초우량 신용채권시장의 빅 이슈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체의 가동과 더불어 발행 감축 규모(1분기 중 6조원)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정책적인 공조 노력의 짜임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교한 구조로 고안되었고 실행에 들어갔다.

사실 공사채/특수은행채 발행 증가 이슈와 관련하여 그간 가장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었던 측면은 관련 로드맵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했던 것에 있다.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추경한다 / 안 한다"라는 식의 방향성 제시 내지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될 수 있다. 실제 현실화 여부와는 괴리가 있다고 해도 가측성 측면은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채의 경우에는 그 같은 의사를 전달할 단일 주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개별 발행 주체 입장에서도 이른바 중장기적인 '재무관리 계획'외에는 자본시장 접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누가/언제/얼마나" 발행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영역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가 가동된 것은 적어도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상황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워낙 빅이슈어들이기 때문에 분기 기준 6조원 감축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가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참고로 '23년 이후 협의체에 참가하는 기관들이 발행한 분기 평균 발행액은 40조원으로 6조원은 그의 16%에 해당된다. 그보다는 협의체에 가입된 기관들의 채권 발행잔액이 총 모수(가입 특수은행 + 공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로써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의 가동은 초우량물 수급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완충장치 역할을 일정 부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중동발 사태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충격 및 후유증을 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 단기간에 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한 전반적인 시장혼란의 와중에서 국내 크레딧 채권시장에의 부정적 여파 또한 배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볼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그간 수급적으로 크레딧 시장 불안 요인 중 하나였던 공적 영역이 이제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역으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확대된 신용스프레드는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해 미리 지불한 보험료의 성격이라 볼 수 있다.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나기를 피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투자 기회의 가능성 또한 점증할 것이다.

2026년 3월 4일 | Global Macro Strategy

월간 하나채권

[3월] 미국은 제 갈 길, 한국은 유가 충격 불가피

Fixed Income

국채 투자의견

	축소		중립		확대
한국			■		
미국			■	●	

주: ●는 직전 전망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을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한국 국채는 '중립' 유지
- 미국: 중동 리스크에도 기준금리 전망은 6, 9월 인하를 유지. 10년 금리는 완만한 둔화 및 연내 2회 인하 반영한 적정 레벨(4.1%)에 근접. 레벨 부담으로 '중립'으로 하향
- 한국: 반도체 주도의 성장률 상향 추세에 더해 물가 리스크까지 부각. 한은은 연준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민감해 연내 동결. 국채 금리 급등에도 인상 우려 고려해 '중립' 유지

1. 미국: 유가보다 금리 레벨 부담에 '중립'으로 하향

1) 매크로 – 완만한 둔화 사이클
- 현재 미국 성장률은 완만한 둔화 국면, 고용 부진 완화로 향후 둔화 폭은 제한적

2) 통화정책 – 이란 이벤트에도 연내 2회 인하 전망은 유지
- 3월 FOMC에서 동결 기조 강화. 다만 일회성 요인으로 인하 기조는 유지

3) 채권시장 – 적정 수준으로 돌아온 금리
- 10년 금리는 약 30bp 급락 후 이란 사태로 반등. 적정 수준(4.10%)에 근접하여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 유가 상승에도 인하 사이클 유효해 금리의 추가 급등보다 안정 예상

2. 한국: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채권시장

1) 매크로 – k자에서 K자로
- 실시간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을 고려하면 여전히 성장률은 상향 추세

2) 통화정책 –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연내 동결 전망
- 성장률 리스크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플레 불안까지. 한은은 연준보다 유가 상승에 민감

3) 채권시장 – 인상 리스크로 고금리 국면 지속
- 유가 진정 전까지 3년 3.20%. 이미 인상 리스크 반영한 레벨로 추가 급등은 제한

3. 투자 전략 및 금리 전망

1) 국채 투자의견
- 한국: 성장률 상향에 더해 물가 리스크로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 지속. 금리 상승에도 '중립' 유지. 다만 실제 인상으로 전환하는 단계는 아니므로 '축소' 의견은 아님
- 미국: 유가 충격에도 인하 경로(6, 9월 인하)는 유지. 다만 완만한 둔화 속 10년 4.0% 이하는 부담스러운 레벨. 금리 하락 여력 감소로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2)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 전망은 p.11 참고

2026년 3월 5일 | Global Asset Research

해외채권

BOJ의 JGB 매입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 **올해 6월에 발표될 '2027년 4월 이후 BOJ의 JGB 매입 가이드라인'에 주목할 필요**
- **BOJ의 JGB 매입 종료 시점은 2029년 3분기로 추정. 수십 년간 이어온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종지부를 찍는 데드라인**
- **BOJ의 JGB 매입 규모 축소는 시장에 부담 요인이지만, 금리 수준이 매력적이라 JGB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

일본 채권시장: BOJ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BOJ는 2024년 8월부터 JGB 매입 규모를 분기 당 0.4조엔 씩 축소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2025년 6월에는 기존에 발표했던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되 2026년 4월(2분기)부터는 분기 당 JGB 매입 축소폭을 0.4조엔에서 0.2조엔으로 변경했다. BOJ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JGB 매입 시점은 2027년 3월(1분기)까지로, 월 2.1조 엔 규모이다.

BOJ의 실제 JGB 매입 규모와 계획을 비교해보면, 2024년 9월 한 차례(자민당 총재 선거에 따른 금리 변동성 대응)를 제외하고는 매월 기존 계획보다 JGB 매입 규모가 적었던 특징이 있었다.

기존 계획보다 BOJ의 실제 매입 규모가 적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① 2024년 3월 YCC 정책 폐기 후에도 채권시장이 BOJ의 도움 없이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가능성과 ② JGB 매입 규모를 소폭 줄여 장기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해 미-일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엔저 방어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BOJ가 보유 중인 채권이 전체 국채 발행 잔액의 약 50%를 차지했기에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채권시장은 올해 6월에 발표될 '2027년 4월 이후 BOJ의 JGB 매입 가이드라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기 당 0.2조엔 씩 꾸준히 축소되는 그림을 유지할 지, JGB 매입 규모 축소(QT)를 멈추고 매월 약 2조엔 매입 규모를 유지할 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시나리오 별로 JGB 매입 규모 추정치와 만기 상환액을 감안한 BOJ가 보유하게 될 JGB 규모를 추정했다.

시나리오 ① 분기 당 0.2조엔 씩 JGB 매입 규모 축소 유지: 현재까지 발표된 BOJ 계획을 참고하면 2027년 2분기 1.9조엔 → 3분기 1.7조엔 순으로 매입 규모가 순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보유한 JGB의 만기 상환액까지 감안하면, 올해 6월에 발표될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시점인 2028년 3월까지 BOJ의 JGB 보유액은 약 437조엔으로 현재 BOJ가 보유한 JGB 잔액 545조엔 대비 약 20%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계없이 분기 당 JGB 매입 규모 0.2조엔 감소가 계속 적용된다고 가정해보면, BOJ가 JGB 매입을 종료하게 되는 시점은 2029년 9월(3분기)로 추정된다. 이 때 BOJ의 JGB 보유액은 367조 엔으로 약 30% 이상 감소하게 된다.

시나리오 ② 2027년 4월부터 월 2.1조엔 씩 매입 유지할 경우: 2025년 6월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시점인 2026년 3월(1분기) 이후에도 BOJ가 JGB를 월 2.1조엔 씩 매입한다는 가정이다. 이번에 발표될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시점인 2028년 3월까지의 JGB 보유액은 만기 상환액까지 감안하면 약 443조엔으로 19%가 감소하게 된다.

시나리오 ①에서 추정한 JGB 매입 종료 시점(2029년 3분기)까지 BOJ가 매월 2.1조엔을 꾸준히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JGB 보유액은 약 400조엔으로 27%가 감소하게 된다.

물론 BOJ는 매월 2.1조엔 매입을 2029년 3분기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BOJ가 JGB 매입을 지속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2032년 전후라고 판단한다. BOJ가 보유한 JGB 가중평균만기(WAM) 6.27년을 감안한 만기일이 2032년 6월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즉, 월 2.1조엔 JGB 매입 규모를 2032년 이후에도 적용한다면 만기 상환액보다 JGB 매입 규모가 커져 BOJ가 보유한 JGB 규모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최대 기한으로 추정되는 2032년까지 JGB를 2.1조엔 씩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BOJ의 JGB 보유액은 약 355조엔으로 추정된다.

정리해보면, BOJ의 JGB 매입 종료 시점은 2029년 3분기로 추정한다. 이는 일본이 수십년간 이어온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 완화)의 종지부를 찍는 데드라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OJ가 발행 잔액 대비 국채 보유 비중을 현 수준인 45%에서 20~30% 수준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이를 충분히 받아내지 못할 경우, 채권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일본 국채금리가 점차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해외 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본 국채 매수를 꺼려했던 생명보험사, 그리고 GPIF의 자금 본국 송환 가능성도 점진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다가올 6월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BOJ는 시나리오 ①에 가깝게 '점진적 감액 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JGB 매입 축소 발표 시점부터 이미 계획보다 적은 금액을 매입하며 시장의 내성을 확인해온 만큼, 2029년 전후로 JGB 매입 종료를 가시화하며 민간 중심의 채권 시장을 재건하려 할 것이다.

2026년 3월 5일 | 기업분석_Issue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2870)

빅뱅 컴백 오피셜

BUY (유지)

목표주가(12M)	100,000원
현재주가(3.4)	62,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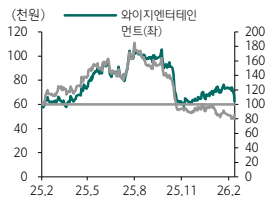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978.44
52주 최고/최저(원)	107,400/58,000
시가총액(십억원)	1,170.1
시가총액비중(%)	0.22
발행주식수(천주)	18,691.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99.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0.8
외국인지분율(%)	9.13
주요주주 지분율(%)	
양현석 외 5 인	22.95
네이버	8.89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534.8	564.0
영업이익(십억원)	70.8	76.4
순이익(십억원)	66.3	74.1
EPS(원)	2,558	3,441
BPS(원)	28,479	31,31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569.2	364.9	545.4	601.5
영업이익	86.9	(20.6)	71.3	93.5
세전이익	93.2	28.8	88.7	118.2
순이익	61.3	18.5	36.5	74.5
EPS	3,285	991	1,955	3,985
증감율	81.19	(69.83)	97.28	103.84
PER	15.49	46.22	35.50	16.99
PBR	2.01	1.75	2.43	2.07
EV/EBITDA	8.71	71.16	14.63	9.26
ROE	14.00	3.90	7.23	13.15
BPS	25,262	26,138	28,548	32,637
DPS	300	250	300	300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실적과 모멘텀이 동시에 높아지는 구간

빅뱅의 글로벌 투어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을 935억원으로 기존대비 약 40% 상향했다. 기존 목표 P/E에 부여했던 프리미엄을 제거하면서 목표주가는 100,000원으로 유지하나 1) 빅뱅 완전체 공연 및 2차 판권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2) 2027년까지 신인 남자/여자 각각 1팀씩 데뷔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인 라인업이 오히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적과 모멘텀이 동시에 상승하는데 올해 예상 P/E는 17배 수준에 불과해 최소 빅뱅의 투어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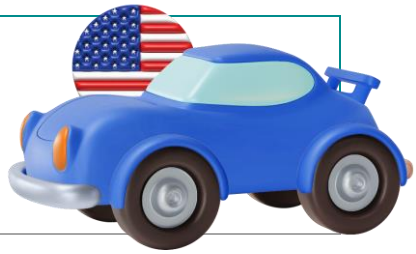
빅뱅의 데뷔 20주년 글로벌 투어 계획 발표

오랫동안 기다려온 빅뱅의 20주년 글로벌 투어 계획을 공식화했다. 8월 이후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하반기에만 100만명 내외의 투어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까지 진행된 지드래곤의 솔로 월드 투어 규모만 약 80만명을 상회하기에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더해 10년 전 대비 급격히 상승한 티켓 가격과 20주년 MD 및 2차 판권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만 최소 3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신인 그룹 데뷔 계획도 구체화

트레져와 베이비몬스터의 연내 최소 2번 컴백도 구체화했다. 각각 2분기에 앨범으로 컴백하며 하반기에는 트레져는 유닛, 베이비몬스터는 정규 앨범 및 투어 지역 확대를 발표했다. 빅뱅을 제외 하더라도 연간 6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신인 남자 그룹은 가을 데뷔 계획을 밝혔으며, 2027년에는 여자 그룹 데뷔 가능성이 높다. 타 기획사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인 라인업이 향후에는 오히려 중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2026년 2월)



하이브리드차 위주로 시장을 상회하는 실적을 유지 중 | 2026.03.05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s

Key Insight: 미국 내 판매 호조는 긍정적이나 연결 실적에서는 방어적 역할. 주가 모멘텀은 SDV/자율주행/로보틱스 부문에서의 진전이 중요

산업

- 미국 자동차 소매판매는 2월 -2% (YoY)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감소. 2월 누적으로도 -1% (YoY) 기록
- 파워 트레인별로는 내연기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가 각각 -1%/-19%/+9% (YoY) 기록. 전기차 감소가 전체 시장의 하락 원인
-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후 5개월 연속 20% 수준의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
- 세액공제 종료와 CAFÉ 규정 완화, 그리고 관세 영향 등으로 전기차 판매부진은 상반기 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하이브리드차는 전체 시장대비 상회 중이지만, 높아진 기저 영향으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의 성장률로 하락
-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는 2월 +6%/+4% (YoY)로 시장을 상회한 실적 기록하며 점유율 11.5%로 확대
- 산업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HMGMA 신공장 및 HEV 차종의 판매 호조(+52% (YoY)) 등의 효과
- HEV를 제외하고는 내연기관차/전기차(PHEV+BEV+FCEV)는 각각 -1%/-10%를 기록하며 약세 지속

주가

- 미국 자동차 시장의 역성장에도 현대차/기아는 HEV 모델 라인업 강화를 기반으로 시장을 상회하는 실적을 유지 중
- 전기차 모델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당분간 시장 내 HEV 중심의 판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대차/기아의 수혜 지속 기대
- 현대차/기아에게 미국 HEV 판매 호조는 글로벌 판매 및 ASP 상승에 모두 기여하면서 실적 방어에 중요한 역할
- 다만, 글로벌 시장 내 제한적인 물량 성장으로 판매 실적 보다는 SDV/자율주행차/로보틱스에서의 진전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
- SDV/자율주행차는 하반기 Pace Car의 제품 수준 및 빅테크와의 협업, 로보틱스는 BD 지분(88%)과 빅테크와의 제휴 등이 모멘텀으로 작용

현대차/기아: 2월 소매판매 +5% (YoY), DSR로는 +5% (YoY)

소매판매

- 현대차의 2월 미국 소매판매 7.1만대(+6% (YoY)), MS 6.0%(+0.4%p). 영업일수를 조정한 DSR 기준으로도 +6% (YoY)
- 현대차의 세단/RV 소매판매 -13%/+12% (YoY). RV 비중 78.4%
- 세단 중 엘란트라/쏘나타 -1%/-27% (YoY). RV 중 싼타페/투싼/팰리세이드/싼타크루즈 +19%/+6%/+28%/-22% (YoY)
-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는 5,730대(+3% (YoY). 판매 비중은 8.0%(-0.2%p (YoY))
- 2월 누적 13.2만대(+4% (YoY)), MS 5.7%(+0.2%p)
- 기아의 2월 미국 소매판매 6.6만대(+4% (YoY)), MS 5.5%(+0.3%p). DSR 기준 +4% (YoY)
- 기아의 세단/RV가 -8%/+10% (YoY). RV 비중 71.3%
- 세단인 K5/쏘울 +21%/-74% (YoY). RV 중 텔루라이드/스포티지/셀토스/쏘렌토 +38%/+6%/+14%/-12% (YoY)
- 2월 누적 13.1만대(+8% (YoY)), MS 5.7%(+0.5%p)
- 양사 합산 소매판매 13.7만대(+5% (YoY)). DSR 기준 +5% (YoY). 합산 MS 11.5%(+0.7%p (YoY), +0.1%p (MoM))
- 양사 합산 2월 누적 26.3만대(+4% (YoY)), MS 11.4%(+0.7%p)

미국 시장: 2월 시장 소매판매 -2%, SAAR 1,580만대(-1%),

소매판매

- 2월 미국 시장 자동차 소매판매는 119.7만대(-2% (YoY)). 2월 누적으로는 230.1만대(-1% (YoY))
- 전년과 영업일수가 동일해 DSR 기준으로도 2월 -2%. 연환산판매대수(SAAR)는 1,580만대(-1%)
- 세그먼트별로는 SUV(+21%)/중형세단(+12%)/픽업(+2%)/CUV(-3%)/소형세단(-17%)/럭셔리(-33%)/대형세단(-95%)

업체별

- GM/포드/스텔란티스 19.9만대/14.6만대/9.6만대(-8%/-5%/+5% (YoY)). MS 16.6%(-1.1%p (YoY))/12.2%(-0.5%p)/8.0%(+0.5%p)
- 테슬라 3.7만대(+4%). MS 3.0%(+0.2%p)
- 일본 토요타/혼다/닛산 18.1만대/10.8만대/8.7만대(+3%/+1%/-3%). MS 15.1%(+0.7%p)/9.0%(+0.2%p)/7.2%(-0.1%p)
- 독일 아우디/BMW 1.4만대/3.0만대(+5%/+3%). MS 1.2%(+0.1%p)/2.5%(+0.1%p)

친환경차

- 2월 미국 친환경차 판매는 24.9만대(-3% (YoY). 판매 비중 20.8%(-0.3%p (YoY)))
- HEV 16.2만대((+9%). 비중 13.5%). PHEV 1.4만대((-38%). 비중 1.2%). BEV 7.4만대((-14%). 비중 6.2%). FCEV 28대에 불과.
- 전기차(PHEV+BEV+FCEV) 판매는 8.8만대(-19% (YoY)). 비중 7.3%(-1.6%p (YoY))

2026년 3월 5일 | Global Equity

Umicore(UMI.BB)

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 통합 밸류체인 구축 계획

벨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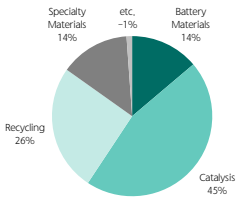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4.54 EUR
CP(3.3)	13.87 EUR

Key Data

국가	BELGIUM
상장거래소	EN Brussels
산업 분류	소재
주요 영업	화학
홈페이지	www.umicore.com
시가총액(십억USD)	3.4
시가총액(조원)	5.5
52주최고/최저()	15.87/7.275
주요주주 지분율(%)	
그루프 브뤼셀 랑베르	16.49
ARTHUR CAPITAL SARL	15.0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6.9	95.5	13.1
상대	26.8	83.5	(0.1)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EUR)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	14,854	14,854	3,521	5,311
영업이익	(1,262)	(1,262)	519	527
순이익	(1,480)	(1,480)	273	288
EPS(USD)	2.1	(3.3)	1.2	1.3
EPS(YOY, %)	(11.2)	(257.3)	(136.6)	4.2
ROE(%)	10.7	(52.9)	13.7	13.4
PER(배)	15.6	N/A	11.4	10.9
PBR(배)	1.6	1.2	1.6	1.5
배당률(%)	3.2	5.0	3.7	3.8

자료: Umicore, 하나증권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2H25 Review : 조정EBITDA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회복

Umicore의 2025년 하반기 실적은 매출 17.7억유로(YoY +6.9%), 조정 EBITDA 4.1억유로(YoY +11.9%)를 기록했다. 배터리 소재 및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Battery Materials 사업부의 하반기 실적은 매출 2.3억유로(YoY +31.6%), 조정 EBITDA 0억유로(YoY 흑자전환)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보상금(고객사가 계약 물량을 모두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Take-or-pay 구조 장기공급계약)이 매출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수익성의 경우,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비용 절감과 공정 효율화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며, 조정 EBITDA가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로써 Umicore의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 35.6억유로(YoY +2.9%), 조정 EBITDA 8.5억유로(YoY +11.0%)로 작년 6월 제시했던 조정 EBITDA 가이던스(7.9억~8.5억유로) 상단에 부합했다.

정책 불확실성 국면에서 부각되는 Take-or-pay 계약 구조

Umicore는 이번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매크로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인 2026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 EBITDA는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며, CAPEX는 3~4억유로로 지난해보다 소폭 확대될 것이라 언급했다(IONWAY(폭스바겐 산하 배터리 제조기업 파워코(PowerCo)와 Umicore의 JV) 지분투자 금액 제외). 한편, Umicore는 현재 유럽 양극재 시장의 경쟁이 극심하다고(fierce) 표현하며,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완화 기조로 다수 OEM이 EV 사업 속도를 조절하면서 배터리 소재 발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3월 초 발표 예정인 'EU 산업가속화법(IAA)'을 중요한 변수로 지목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일정 비율 이상 역내 생산·조달이 강제된다면, 현지 생산 거점과 Take-or-pay 계약을 보유한 소재 업체들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일정 수준의 물량과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Umicore는 Take-or-pay 계약 구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계약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HS효성첨단소재와 실리콘 음극재 파트너십 체결

한편, Umicore는 벨기에 올렌에 위치한 핵심 음극 R&D 센터에서 10년 이상 실리콘 음극재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실적발표에서 HS효성첨단소재와 실리콘 음극재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합작법인(Extra Mile Materials)을 통해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말까지 올렌 공장을 산업용 데모 플랜트 규모로 확장해 양산 전 단계의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Umicore는 대규모 CAPEX 부담 없이 실리콘 음극재 개발 및 산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전기차 시장 내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성장 기회 대비 다소 제한적인 FCF 여력

한편, Umicore의 현금흐름은 부정적이다. 2025년 말 FCF는 약 5억유로이나, 이는 금(Gold) 재고 매각 및 리스 전환에 따른 일회성 현금 유입이 크게 반영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5억유로 내외의 2025년 FCF는 2026년에 대폭 감소 가능성이 높다. 올해 2026년 CAPEX 가이던스로 3~4억유로를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이자 비용, IONWAY JV 출자, 배당 등을 동시에 충당해야 함을 고려하면, 중기적으로 가용한 내부 현금흐름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현금흐름은 타이트하지만, 최근 리튬 가격 회복은 배터리 소재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또한 실리콘 음극재 사업 협력은 밸류체인 확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회이며, 기존 삼원계 양극재 전략과 결합될 경우 고에너지밀도·장거리 주행을 요구하는 EV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고려하면, '양극재-음극재-재활용'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통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실적 성장 가시성은 높다고 판단한다.

2026년 3월 4일 | Global Equity

뉴스케일파워 (SMR.US)

반등을 위해 필요한 것

미국

TP(컨센서스)	19.04 USD
CP(3.3)	12.53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거래소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nuscalepower.com
시가총액(십억USD)	4.2
시가총액(조원)	6.2
52주최고/최저(USD)	57.4/11.08
주요주주 지분율(%)	
Flour	12.53
뱅가드	4.8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35.1)	103.6	296.2
상대	(33.6)	97.8	279.6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1	31	86	174
영업이익	(690)	(690)	(281)	(296)
순이익	(356)	(356)	(111)	(108)
EPS(USD)	(2.2)	(2.2)	(0.5)	(1.0)
EPS(YOY, %)	0.0	0.0	(76.7)	89.7
ROE(%)	(38.4)	(39.8)	(20.6)	(15.9)
PER(배)	N/A	N/A	N/A	N/A
PBR(배)	8.1	8.0	11.4	12.9
배당률(%)	0.0	0.0	0.0	0.0

주: 조정 기준
자료: 뉴스케일파워, LSEG 시장 예상치, 하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4Q25 Re: RoPower Feed 2 종료로 컨센 대폭 하회

매출액 183만 달러(YoY -95%)로 컨센(860만)을 대폭 하회했다. 6개 모듈, 462MW로 규모는 작지만 공개된 프로젝트 중 가장 진전도가 빠른 루마니아 RoPower는 '25년 말 FEED Phase 2 가 마무리되었으며 '26년 2월 루마니아 국영전력의 Nuclearelectrica 주주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승인되었다. '26년 2분기부터 pre-EPC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EPC 전까지 RoPower 매출 여력은 제한적이며 계약 조건 역시 뉴스케일파워가 실행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 주기기 제조를 맡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캐파는 현재 12기이며 20기로 확대 중이다.

TVA 계약은 여전히 불확실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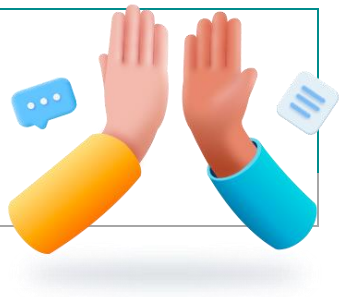
미국에서 진행 중인 최대 규모(6GW)의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프로젝트는 '25년 9월 처음으로 MOU가 공개되었다. 72기의 NPM이 투입되며 기대감을 높였던 프로젝트지만 본계약이 지연되며 시장의 실망감이 커진 상황이다. 정족수 부족으로 본계약으로의 진전을 막았던 TVA 이사회는 '26년 1월 12일 4명의 이사를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PPA 초안 작성을 진행 중이며 뉴스케일파워와 TVA 사이의 중간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ENTRA1은 엔지니어, 건설 계약 등을 구성 중이다. PF 측면에서는 여러 금융 기관이 ENTRA1과 협력 중이며 한 대형 금융기관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의 텀싯에 서명한 것으로 공개했다. PPA 체결 이후 COLA(운영허가)와 FEED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TVA가 프로젝트의 실행 리스크를 떠안으려 하지 않는 모습과 구체적인 타임라인의 부재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내러티브가 아닌 숫자 증명이 필요

동사가 SMR Pure-Player 가운데서도 주가 하락 폭이 가장 컸던('25년 7월 고점 대비 -75%) 이유는 Flour의 지분 매각 발표와 불확실성을 높이는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 유동성 리스크 부각 때문이다. 이번 실적발표에서 확인된 진전도로는 여전히 TVA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빅테크향 계약 신규 공개도 필요하다. '25년 SMR 섹터의 주가 상승을 이끈 것도 실질적인 계약이 아닌 4건의 행정 명령을 포함한 정책 모멘텀이다. 더 이상 내러티브가 아닌 숫자 증명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RF머트리얼즈 (327260.KQ)	3/3	42,800	42,300	-1.17%	•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루멘텀향 포함)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기대 • 중국산 부품 제재 및 피지컬 AI 시대 통신용 광모듈 수요 확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9.46%	+9.84%p	+32.85%	+11.8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B금융 (105560.KS)	2/9	149,300	137,700	-7.77%	•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 (039490.KS)	2/9	405,000	372,500	-8.02%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기아 (000270.KS)	1/12	133,200	156,700	17.64%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72,200	43.62%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849,000	30.41%	•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58,500	38.55%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S-Oil (010950.KS)	1/2	83,000	126,500	52.41%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0.21%	-0.81%p	+20.21%	-0.8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4,045	-18.7%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420	-18.1%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2,450	-11.5%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1,085	62.2%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QDF (미국 퀄리티 배당 주식)	2026.02.02	82.93	82.58	-0.4%	• 우량 배당주 선별 투자. 미국 상장 기업 중 펀더멘털(수익성, 경영 효율성, 현금흐름)이 우수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퀄리티' 기업들로 구성 •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하락 방어력이 높음. 성장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창출에 집중하는 균형추 역할 기대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6.52	23.8%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391.06	15.3%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5.53	15.9%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1	**3.2**	**3.3**	**3.4**	**3.5**	**3.6**	**3.7**
한국 2월 수출입 동향 발표 수출 증가율 YoY (29%, 1월 33.9%)	▪ 미국 2월 ISM 제조업 지수 (52.4, 1월 52.6)	▪ 일본 1월 실업률 발표 (2.7%, 12월 2.6%)	▪ 중국 2월 제조업 PMI 발표 (49.0, 1월 49.3) ▪ 미국 2월 ADP 취업자 변동 (E 50K, 1월 22K)	▪ 미국 2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E --)	▪ 한국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E --/--, 1월 2%/0.4%) ▪ 미국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수 변동 (E --, 1월 130K)	
3.8	**3.9**	**3.10**	**3.11**	**3.12**	**3.13**	**3.14**
	▪ 일본 1월 BOP 경상수지 (E --, 12월 ¥728.8b) ▪ 중국 2월 전년대비 CPI (E --, 1월 -1.4%)	▪ 한국 4분기 전기대비/전년동기대비 GDP 발표 (E --/--, 3분기-0.3%/1.50%)	▪ 미국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E --/--, 1월 2.4%/0.2%)	▪ 미국 3월 첫째 주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E --)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발표 (E --, 2월 56.6)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